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 세션 3, 서론, 3부, 성경적 탐구,

### 이사야 53장 계속, 로마서 3:25-26, 그리고

### 속죄의 역사

© 2025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서론, 3부, 성경적 사색, 이사야 53장 계속, 로마서 3:25-26, 속죄 교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이사야 53장에서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신약 교리를 위한 성경적 사색을 합니다.

저는 이미 그의 고난, 거부, 억압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것이 이 종의 노래의 주요 인상입니다.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무죄함은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는 의로운 자, 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죽음은 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저는 앞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사건을 해석하는 성경적 그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그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구약에서 유래했으며, 신약적 그림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자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를 짓밟는 것이었고, 그는 종이 될 자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그는 그의 자손을 보고, 그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이것은 죄책 제물, 구약의 아삼 개념입니다 .

여기 희생의 언어인 asham은 범법 행위 또는 죄책 제물과 같으며, 고통받는 종의 죽음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에서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것들 중 어떤 것에 대하여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으면, 그는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그의 보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세겔로 평가된 양 떼에서 나온 것이다. 죄책 제물이다.

그는 또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배상을 거룩한 것에 바치고, 그 중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과 제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며,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반복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만약 누군가가 주님의 계명에 따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죄를 지었다면, 그는 그것을 몰랐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므로 죄과 제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는 자신의 죄악을 져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양 떼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죄과 제물로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그가 실수로 저지른 잘못을 위해 속죄해야 하며,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은 죄과 제물이다. 그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놀랍게도 인간 제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종의 영혼이 아삼, 죄과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간 제사의 효과입니다. 5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는 많은 민족을 뿌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종은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뿌릴 것입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그들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로 레위인의 정화에 대한 언급은 틀림없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주님의 종이 속죄의 희생적 죽음을 당하여 죄를 씻어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이 놀라운 장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의화.

이사야 53: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요, 그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ESV 그의 지식으로 의로운 자,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길 것이며, 그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의지의 속죄적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롭다고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다른 모든 곳에서 동사 justifies 또는 acquit, 제 생각에는 sadak 이 경건한 사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구약성서의 가르침이 신약성서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무죄 판결 또는 정당화라는 단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판사의 임무는 무고한 사람을 무죄 판결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고한 사람을 유죄 판결하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와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사람들을 무죄로 선언하거나 옹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죄의 용서 등을 가르칩니다.

저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어의 조합은 매우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선언하십니다. 사실, 경건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 구약성서적 용법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사람들을 옹호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무죄로 판결하십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인 야고보가 이것에 대한 구약성서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바울은 급진주의자입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스캔들 같은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런 행동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캔들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경건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하며,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십니다. 구약과 칠십인역에서만 이 단어는 dikao 로 , 신약에서 정당화하는 단어입니다. 정당화는 악한 자에게 사용됩니다.

한 번 더. 의로운 자, 나의 종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길 것이다. 그것은 정당화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구약에서 오직 여기서만, 정당화라는 단어가 악한 자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에 대한 추문적인 교리를 주장한 구약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4:5에서 우리는 그것을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것은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유지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공의롭게 선언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입증되거나, 제 농담을 용서하세요, 정당화됩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성경의 음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25-26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사야 53장에 있고,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를 짓밟고 고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주께서 그의 생명을 죄과 제물로 삼으시더라도, 주의 뜻은 그의 손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의로운 종의 모든 불의한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종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주님의 종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수단입니다. 한 가지 요점을 강조하자면, 다시 말해서 승리의 모티브입니다. 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여섯 가지 주요 그림을 봅니다.

53 장 11절의 마지막에 있는 단어, 정당화의 개념, 그리고 정당화된 자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종은 신약의 법적, 형벌적 그림과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Christus victor 또는 승리의 모티브는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종의 죽음은 승리로 끝납니다. 53:10은 주님께서 종의 생명을 제물로 삼으시지만, 그는 그의 자손을 보고 그의 날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자손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날을 연장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예언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가르침의 깊이에 경탄합니다. 이사야 53:12는 종의 죽음의 결과를 묘사하기 위해 승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큰 자들 가운데서 몫을 주고 그는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쏟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과 그가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비유적인 언어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죽음 이후에 높이시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52:13에도 승영에 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내 종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내 종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그는 들어올려지고 높이 올려지고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끔찍한 고난은 52:13과 53:12의 두 끝, 특히 그 구절의 시작 부분에 승리와 영광의 언어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에 대한 신약의 패턴과 매우 잘 맞습니다.

더욱이 이 유대 히브리 노래에는 종의 일이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사야 52:15는 우리가 보았듯이 희생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종이 많은 나라를 뿌리고 왕들이 그로 인해 입을 닫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보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 선지자의 예언으로, 종의 사역의 결과가 보편적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 앞에 경배합니다. 다음은 이방인에게 이로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13~53:12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씨앗 형태로 전개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많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신약 UBS 2호는 신약에서 이사야 53장에 대한 41개의 암시를 나열했습니다. United Bible Society의 그리스어 신약의 다음 판은 훨씬 더 엄격했고 암시보다는 예측, 암시보다는 인용만을 나열하려고 했으며 그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한 암시가 40개 이상 있습니다. 즉, 신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 하나나 둘만 하겠습니다. 9절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ESV는 히브리어 숫자를 잘 전달하고 번역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그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것은 복수형이고, ESV는 그의 죽음에서 부자와 함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지만, 예수는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사야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예언한 것이 그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부자가 죽은 것과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우 시사적이며, 그것이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다른 소리는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 장을 그리스도의 속죄, 특히 사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약성서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로마서는 신약성서의 핵심 서신이며 바울의 생각에 대한 열쇠이며, 속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장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주장에 결정적이고 풍부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21 , 그러나 이제 율법과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별도로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별도로, 인간의 의와 별도로, 비록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이 그것을 증거하지만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은, 생략부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받게 하려고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심이요, 그의 관용하심으로 이전의 죄들을 간과하셨음이니라.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서 그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성서는 로마서 3:25에서 전통적으로 화해 또는 화해시키다로 번역된 언어를 네 번 사용했고,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요한일서 4:1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네 구절 중 가장 중요한 구절이며, 보통 헬라스모스 , 헬라스테리온 , 헬라스케스타이 단어 그룹의 의미를 해석하면, 여기서는 보통 다른 구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논쟁이 있었고, 화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그 진노를 그 진노의 대부분을 짊어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신자들에게서 돌이키신다는 개념은 특히 CH Dodd가 기사에서, 나중에는 그의 책인 성경과 그리스인에서 도전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어 구약성경인 칠십인역에서 작업하면서, Dodd는 화해의 개념은 이교도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에 속하지 않으므로 로마서 3:25는 화해가 아니라 속죄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 거기에 25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죄가 아니라 그의 피로 속죄로 내세우셨다는 개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피에 굶주린 신이 자신의 살덩어리와 이런 종류의 물건을 요구하는 이교도적 개념입니다. Dodd는 비슷한 단어 그룹을 사용하는 구약성경 구절을 연구했지만 그 맥락에서 분노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작품은 너무 영향력이 커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

신학자들이 성경 언어를 알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박사 과정에서는 그 프로그램에서 일하려면 성경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알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어를 안다면 좋았지만, 히브리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없었을 테고 , 그래서 일어난 일은, Dodd, 저는 그의 의도나 성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속였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구절은 속죄를 가르치고 화해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둘 다 성취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확실히 속죄를 성취했습니다. 속죄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속죄와 화해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속죄에서 그것은 죄인을 향하고, 그들의 죄와 죄악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화해에서 그 방향은 하나님 자신을 향합니다. 특히 하나님 자신의 성격이나 의로움은 화해되거나 만족됩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25-26. 그리스도의 희생도, 대제사장이 매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반복적으로 바치는 것도 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세상 창조 이래로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나타나셨고, 그 의미는 때가 되어, 시대의 끝에 자신을 희생하여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26.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속죄가 속죄를 성취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곳과 다른 세 곳, 히브리서 2장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13장, 아니,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요한일서 4:10, 히브리서 2:17에서 이 곳의 의미는 속죄이지 단순히 속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에서 로마서 3:21로 이어지는 더 큰 맥락과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둘째, 로마서 3:25를 둘러싼 단어 자체입니다. 로마서 1:16과 17에서 로마서의 목적 진술을 발표한 후 문맥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그는 의라는 단어를 빼고 진노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자신의 주제를 발표한 후 그는 십자가의 사도적 설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의 계시라는 주제를 즉시 추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라는 주제를 추구합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그것은 1장 16절과 17절의 좋은 소식, 그리스어로 euangelion 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단어를 만들어서 그것은 kakangelion, 나쁜 소식 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루터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엄청난 소통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로움, 로마서 1:16-17로 선포됩니다. 1:18은 하나님의 징계하는 의로움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3:21까지 이어지고, 그 시점에서 바울은 진노를 빼고 의로움을 3:21에 다시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은 율법과 별개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유대인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는 3:9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나은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의로운 자가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구약성경, 특히 시편에서 인용합니다. 그들의 발은 15절에서 피를 흘리기에 빠릅니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요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완전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자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드러났습니다.

이제 3:21에서 그는 1:16-17에서 선포된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사도들의 전파에서 나타났지만, 물론 구약성경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믿음은 칭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서 바울이 로마서 1:16-17에서 주제적 진술에서 믿음을 두 번이나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주제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말하고 반복합니다. 이 의는 행함으로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제가 Doug Moo나 Tom Schreiner에게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그들은 저와 동의합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기 전에 썼지만, 저는 그들을 읽기 전에 그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오리스트 시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원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현재 시제는 실제 죄, 우리가 인간의 죄라고 부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2절 b에서 23절까지의 작은 괄호 뒤에,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22절 a, 24절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그의 은혜로 선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 속죄 모티브, 속죄의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한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구속이 속박의 상태, 대가 지불, 그리스도의 죽음, 그 결과로 생긴 자유의 상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자아, 그리고 심지어 마귀의 노예에서, 요한 1서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노예, 사실상 가장 자유로운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속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것을 열지 않지만, 화해를 열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textus classicus*, 화해 교리에 대한 고전적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속죄나 화해를 위한 *hilasterion* 으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의 권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신성한 관용 속에서 그는 이전의 죄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한 속죄의 그림을 주셨다는 뜻인데, 희생 제도, 손을 얹는 것,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제사장의 희생, 용서의 제사장의 말씀, 그것이 복음의 그림이다. 그리고 믿고 겉치레적으로 그저 동작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받았다.

황소와 염소의 피에 근거하여, 예와 아니오. 그것은 신이 정한 수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표되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그 일이 행해지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가 서기 30년 33년에 죽기 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받았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관용에 있어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 단어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전의 죄를 간과했습니다. 즉, 그는 예배자들을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 제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동물 희생의 대체물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용서하셨지만, 정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매번 용서하셨고, 저는 여러 다른 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약학에는 희생이 몇 번 있었나요? 동물은 몇 마리였나요? 수백만 마리에 달합니다. 그들은 백만 마리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특히 강조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은 그들에게 효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곤두세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신은 자신에게 IOU를 썼습니다. 칼빈은 버터 황소와 염소가 복음을 냄새 나는 방식으로 원시적으로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리로 기뻐했던 구약 종교를 그 점에서 역겨운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분을 기대하며 자신에게 IOU를 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죄로, 즉 십자가에서의 폭력적인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배경에서 자신의 품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이전 죄를 간과하신 것은 신성한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전 죄에 대한 그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정당화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현대인과 포스트모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은 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세 장이나 로마서 세 장만 읽어보세요.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신은 세상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문제는, 사랑이 많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신이 어떻게 자신의 거룩함과 정의를 유지하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희생 제도에서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피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의 피는 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신은 그의 아들을 죄과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만한 형벌로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노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들어서시고, 그분이 자신의 축복받고 죄 없는 인격 안에서 저주의 천둥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큰 그림에서, 질문은, 1:18에서 3:20과 5:1까지 모든 분노가 자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3:25-26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화평을 얻었거나,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은 Leon Morris가 주장했듯이, Roger Nicole이 주장했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DA Carson이 *The Glory of the Atonement* 라는 책의 한 장에 있는 festschrift, Roger Nicole을 위한 축하 글입니다. Roger는 Westminster Journal에 기사를 썼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Apostolic Preaching on the Cross에서 Leon Morris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CEB Cranfield와 Tony Thistleton과 같은

사람들을 설득했고, 항상 보수적인 노선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Morris의 뛰어난 학문성에 설득당한 다른 학자들도 설득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칠십인역 구절을 연구하고, 그 중 많은 맥락에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의 주장의 흐름이 클 뿐만 아니라, 로마서 3:25에서 화해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직접적인 맥락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속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요구에 대한 만족으로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ESV에 동의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화해 제물로 내세우신 분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어 그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가장 사악한 죄인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말한다. 하느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무엇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성격에 의해 강요받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던 동일한 성격, 용서의 길로 화해를 생각했던 동일한 성격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무죄로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동일한 성격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신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는 반바지를 입고 차가운 바닥에서 차고 바닥에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릎이 아팠다. 추웠다.

그는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교회 의자에 앉아 로마서, 화해의 개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무상 제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는 믿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차고에 무릎을 꿇는 것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신자들에게 용서와 영생을 가져왔고, 그의 사역은 속죄를 포함한 많은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죄를 향해 지향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를 없애줍니다.

그의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달래어, 그가 도덕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그를 통해 예수께 진심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속죄 교리의 역사로 넘어가서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역사 신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성경이 중재자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지혜에만 국한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경건한 남성과 여성에게 시대의 지혜를 차단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성경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 저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뿐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 있고, 인간적인 오염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얻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염된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그리고 시대의 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을까요? 속죄 교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한 명의 모범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강점을 보고 실수를 볼 것입니다. 경향을 볼 것입니다.

저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H Dermot McDonald의 책, *The Atonement of the Death of Christ* 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역사적인 부분은 정말 훌륭하고 Anthony C Thistleton, Tony Thistleton의 체계적 신학도 훌륭합니다.

그는 영국 복음주의자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보수적이지는 않지만,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국 성공회 맥락에서 확실히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특히 서방의 초기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만, 동방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동방의 초기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세와 안셀름의 유명한 가르침, 그리고 그에 강력히 반대했던 아벨라르드로 가고 싶습니다. 종교 개혁은 루터와 칼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치누스는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거의 모든 것을 거부했고, 그로티우스나 그로티우스는 정부적 관점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via media 를 시도했지만, 이단자였지만 여러 면에서 실패한 소치누스만큼 나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쉴라이어마허, 19 세기에 매우 영향력 있는 교사였던 알베르트 리첼, 중요한 책인 *Christus Victor* 를 쓴 구스타프 알랭,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사망한 동시대 인물인 독일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입니다 .

우리가 이 문제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것은 서구에 있었습니다. 사도 교부들은 사도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신학교 졸업생이었고, 주석학은 잘했지만 교회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커리큘럼에 역사 신학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 사도 교부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알고 있었어. 이건 대단할 거야, 이건 훌륭할 거야. 그리고 저는 지금 유명한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토런스의 첫 번째 책인 *은혜의*

교리와 사도 교부들을 떠올렸고 , 그의 논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바울이 정상, 큰 산에 도달한 것 같았고, 갑자기, 당신은 계곡에 있고, 사람들은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은 거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섭죠, 오 마이. 공평하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공평하게 말해서, 그들은 사자를 피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세기 중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에 보석이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쓴 익명의 작품인데,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심오하지는 않지만, 정당하게 유명한 구절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석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합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이런 종류의 말을 했다면,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고, 토런스는 풍부한 은혜의 교리와 사도 교부들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인용문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외에 무엇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 달콤한 교환과 예상치 못한 혜택이며, 많은 사람의 사악함이 의로운 자에게 숨겨져 있고,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사악함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죽은 우리 아버지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많이 남기지 않았더라도요. 이레네우스(130~202 년 )는 최초의 진정한 기독교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재현론으로 유명합니다.

2세기 교회의 뛰어난 신학자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사도적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앙의 규칙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을 자신 있게 옹호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적 신앙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는 믿음을 옹호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다고 여겼던 독특한 측면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을 때, 다시 한번 긴 인류의 계보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셨으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요약 교리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모아집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분명히, 이레네우스의 초기 저서 *Against Heresies*의 전체 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고자 하였습니다. ESV에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약, 혹은 무뇌증은 성경적, 바울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내 속죄 모티브 중 하나와 비슷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는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특히 바울에 의해 두 번째 아담이자 새 창조의 저자,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가져오는 자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그 동사, *anencephalosis* 는 요약하고, 요약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10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아담에 대한 언급은 아담 안에서 우리의 나쁜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로 재현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 이것은 동방 정교회의 주제의 근원입니다. 서양에서 , 중세 시대까지, 사실, 초기의 지배적인 주제는 악마에게 대속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안셀름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선한 주님은 악마에게 바지를 걷어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몸값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신격화나 신화 라고 불리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를 역전합니다.

이레네우스는 바울의 속죄 사상에 진정으로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명확히 한 듯합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네 가지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는 또한 속죄를 사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로 묘사합니다. 이미 Christus Victor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신격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1:4,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Christus Victor, 승리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는 이 요약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시대를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의 반대자들이 "아브라함아, 내 날을 보고 기뻐하라"고 한 말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50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예수가 50세까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는 어린 시절을 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네, 저는 예수께서 사춘기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는 청년기를 성스럽게 여겼다. 그는 그들에게 노년을 성스럽게 여겼다 . 50이 노년이 될 것이다.

즉, 그는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모든 시대를 거쳐 경건함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인류를 대표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아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타락한 반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승리했고, 우리는 그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 신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서론, 3부, 성경적 고찰, 이사야 53장 계속, 로마서 3:25-26, 속죄 교리의 역사입니다.